

“부처님 신심 깊고 나라 사랑하는 민족의식 철저”

(信心)

대종사 東庵

(3) 봉선사 출가

근현대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수행자의 길을 걷은 동암당(東庵堂) 성수(性洙, 1904~1969) 대종사(大宗師)는 신교육을 받고 출가해 교학연찬과 참선수행을 하며 정진했다. 1950~60년대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해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청정수행 가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헌신했다. 어렵게도 쟁쟁이나 업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스님)와 불교신문(사장 현범스님)은 ‘대종사 동암’을 공동연재하여 스님의 자취를 기록하고 가르침을 선양하기로 했다. 동암 대종사 손상좌인 도일스님(봉선사 부주지,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도 뜻을 같이했다.

고향인 평북 회천에서 신구학을 익히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후 묘향산 보현사에서 은신하고 있던 동암스님은 불교 진리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출가에 뜻을 품게 된 스님은 불법(佛法)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일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사찰을 찾아 나섰었다. 이 때가 1920년 말 또는 1921년 초로 추정된다. ‘동암당성수선사비문’에는 “남달리 총명하여 보통과정의 신교육을 마치고는 일제와의 항쟁에 가담하였다가 묘향산 보현사에 은신함이 불문(佛門)을 두드린 인연이 되었다”고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무렵 봉선사에 주석하고 있는 월초거연(月初巨淵, 1858~1934) 스님과 교분이 있던 보현사 주지 박보봉(朴普峰, 1871~?) 스님의 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현사를 떠나 평안도와 황해도를 거쳐 양주(지금은 남양주) 봉선사에서 도착한 동암스님은 행자로 지내면서 출가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고려 광종 20년(969) 범인국사(法印國師)가 운약사(雲岳寺)라는 사명(寺名)으로 창건한 봉선사는 역대 선지식이 주석하며 법향(法香)을 전한 유서깊은 도량이다. 조선 예종 1년(1469) 세조의 능침을 광릉에 모신 후 봉선사(奉先寺)라 칭하였다. ‘선왕을 받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명종 5년(1550)에 선교양종의 교종 수사찰(首寺刹)로 지정됐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병화(兵禍)를 겪었으며 계민선사(戒敏禪師)가 중건한 후 거듭 중수하여 대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근대에 들어 봉선사는 월초스님이 주석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월초스님은 남한총섭(南漢總攝, 1892)과 북한총섭(北漢總攝, 1893)을 지내며 전국 사찰의 승군(僧軍)을 지휘했다. 사실상 당대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다. 하지만 외세의 침탈로 국운이 기울면서 월초스님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불교를 기반으로 호국(護國)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대한제국 시기 한국 불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원흥사 창건(969) 범인국사(法印國師)가 운약사(雲



동암스님의 노은사인 월초스님.



동암스님은 1921년 3월 15일 교종본찰 봉선사에서 월초스님의 제자인 인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사진은 한국전쟁으로 전소되기 이전의 봉선사 전경.

1921년 3월 봉선사에서 은사 인담스님에게 득도 ‘주경야독’하면서 정진해

충성지낸 월초스님 영향 불교근대화도 깊은 관심 출가하면서 ‘독립운동가’



적으로 참여했다. 주로 봉선사에 머물며 가람을 외호하고 학림을 설치하여 제자를 양성하는데 앞장섰다.

동암스님이 출가의 뜻을 품고 산문에 들어섰을 때도 월초스님은 봉선사에 주석하고 있었다. ‘박행자’로 불린 동암스님은 공양을 준비하고 도량을 정소하면서 대중을 사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사중(寺中)을 하면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고,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전을 익히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실천했다. 입산 전에 신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기에 다른 행자들 보다 교학을 배우는데 뛰어났다. 손상좌인 도일스님(오봉산 석굴암 주지)은 “은사이신 조안 큰스님께서 간혹 노스님



동암스님은 백파공선 - 해암보혜 - 환옹환진 - 월초거연 - 인담회진 스님으로 이어지는 맥을 계승했다. 사진은 1960년대 중반 선산 도리사에서 정진할 당시.

이야기를 들려 준 적이 있었다”면서 동암스님 일화를 회고했다. “노스님께서 행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겉으로 표시 내지 않고 인욕(忍辱)하며 오히려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무렵 봉선사에 주석하고 계시던 월초 큰스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는 것이 중도(中道)를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격려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암스님이 봉선사에 입산한 시기는 전국적으로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흐른 뒤였다.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식민지 정책이 바뀌었지만 일제가 감시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1919년 3월 29

일 양주(지금은 남양주) 광릉전에서 마을 주민들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봉선사 스님들은 ‘요시찰 대상’이었다. 이순재(李淳在, 지월스님), 김성숙(金星淑, 운암스님), 강완수(姜完洙, 현일성(玄一成), 김석로(金錫魯) 등이 봉선사 스님 다수가 구속 수감된 후였기에 상황은 엄중했다.

또한 1919년 10월 29일 200여 명의 스님과 100여 명의 주민 등 2000여 명이 봉선사에 모여 ‘이태왕(李太王) 전하의 제사’를 지내 10명의 무장순사가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태왕은 고종황제이다. 그해 세상을 떠난 고종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919년 10월 31일자 <매일신보>에 ‘무장순사가 봉선사에 급행(急行)’이란 제목으로 보도됐다. 당시 봉선사 스님들이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일화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동암스님이 봉선사를 출가도량으로 선택한 까닭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고향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해 은신한 이력이 있던 동암스님은 신분을 철저히 숨기면서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수행자로 살았다. 그러나 내면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애국심과 열정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한편으로는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출가자로서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원력으로 세웠다.

동암스님이 봉선사에서 행자로 지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불가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행자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921년 3월 15일(음력) 봉선사에서 인담회진(印潭會眞)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인담스님의 속성은 성(成)씨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수행이력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월초거연(月初巨淵) 스님의 상좌라는 사실이다.

월초스님의 은사는 환옹환진(幻翁喚眞, 1824~1904) 스님으로 백파공선(白坡巨璇, 1767~1852) - 해암보혜(慧庵普惠) 스님의 법을 이었다. 1978년에 형준(炯俊)스님이 편찬한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源流)>에는 인담회진스님이 월초스님과 사형사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1918년 이능화가 저술한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는 환옹스님을 “기개와 도량이 넓어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계행(戒行)을 정정하게 지켜 선지식으로 추앙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선과 화엄을 중시한 백파공선 스님은 한국 선종의 전통을 지향하고 동시에 발전시킨 ‘선문(禪門)의 중흥주’로 존경받는 수행자다. 동암스님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수행가풍에 영향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백파공선, 해암보혜, 환옹환진, 월초거연, 인담회진 스님으로 이어지는 정맥(正脈)을 계승하며 참선수행과 교학연찬의 가풍을 이어받았다. 동암스님의 맥은 초안스님을 거쳐 도일스님으로 계승됐다. 봉선사에서 출가한 동암스님은 노(老)은사인 월초스님의 불교근대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불교 전통을 근간으로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수행에 집중했다.

범어사 강주를 지낸 백운스님은 생전에 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암스님은 출가자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信心)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철저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동암스님은 봉선사에서 행자생활을 거쳐 득도한 후 수행자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이 시기의 경험과 교육은 이후 동암스님의 생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불교의 정맥을 회복하고 전법의 등불을 밝힌 것도 봉선사에서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장안의 화제! 불교계 최초 태고명상 다이어리 출시!
임산부 위한 40주 태고명상집

엄마랑 아이 좋아

• 글 덕원스님
• 그림 박혜상
• 289쪽
• 값 30,000원

팔만대장경 속 태고명상 적응하는 320개 화두와 진언, 그리고 기도...
덕원스님 “소중한 생명과의 따뜻한 교감 그 자체입니다.”
박혜상 작가 “엄마 마음에 평온 전하는 작은 손길입니다”
스님이 신도들에게 출산선물 결혼선물 하기에 딱 좋은 책입니다!

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5층 T. (02)733-1604 F. (02)3210-0179

아프고 지쳐도 힘겹게 버티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금강경 선물합니다

홍익대 미대 졸업 후
동국대서 불교미술 공부한
박혜상 작가가 선보이는 두번째 야심작!

금강경 읽고 착안한 50컷 찰나의 화두...

박혜상의 금강경 컬러링북은
경전이 그림되는 현대판 변상도입니다.

금강경 선물
박혜상 그림 | 112쪽 | 13,500원
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5층
T. (02)730-4488 F. (02)3210-0179